마음부활과 영생의 생활화

(에스겔 39:1~29)

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2.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3.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4.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5.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부활과 영생의 생활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부활과 영생의 생활화'

십자가 생활화는 십자가에 얹혀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에스겔 37장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고, 38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의 생활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부활과 영생의 생활화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날마다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부활한다는 것은 곧 날마다 영생을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육체가 죽은 뒤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땅의 언어와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한 번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그 보좌 주변이 묘사되는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은 구분되고 좋게 구분되고 좋게 구분되어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 정점의 좋은 상태입니다.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면서 밤낮으로 노래해도 지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에서 가졌던 모든 꿈들을

잊고 그곳에서 살기를 소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 전부터 좋아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이셨습니다. 이렇게 일체되심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이 끝도 없이 무한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지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생을 생활화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생은 몸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날마다 죽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날마다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삶에서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거하시는 영생이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을 생활화할 때에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영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부터 영생의 삶은 시작됩니다.
“의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은 곧 깨달음입니다. 연예인들이 대중을 의식해서 평소에도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MT를 가게 되었는데 좋아하는 여학생이 건너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즐겁게 놀면서도 반대편의 그 여학생을 항상 의식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말과 행동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상대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의식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도 돌보고 배우자도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터널을 통과해서 세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의식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죽음과 무덤의 터널을 통해 어느덧 세상을 빠져나와 부활의 자리에 가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는 천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는 곧 하늘의 영역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늘의 영역이 임함으로 영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 부활의 자리에 이르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모습일 것입니다. 한편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자들의 삶에서도 특징적인 모습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곡과 마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곡과 마곡은 선민을 대적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사상에서는 이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37장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가 부활하는 환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이 해방될 것과 선민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이 나오고 성전 의미의 완성인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소에 대한 언급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언급 또한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되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앞의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언급됩니다. 다시 말해 곡과 마곡은 이 땅에서 마음이 부활하여 영생을 사는 자와 대비되는 위치에 선 자들입니다. 20장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이들이 섞일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이질적 영역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사는 자의 그룹과, 마음이 세상을 빠져 나옴이 없이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타협이나 화해나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이질적 존재라는 것을 곡과 마곡과 그 동맹군으로 대비를 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는 특별히 마음이 부활해서 영생을 생활화하는 자들이 가진 특징적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생을 생활화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육체 연관성 안의 삶이 하나님의 활동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활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쳐서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곡과 마곡의 동맹군이 선민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활동영

역이 아니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갔음으로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부활함과 동시에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부활함과 동시에 내 삶은 끝났고, 내 이력서는 마음이 부활함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생활화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의식하는 동안 주님의 죽음과 무덤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빠져나간 세상에서의 삶은 곡과 마곡의 군대의 활을 떨어뜨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육체의 연관성 안에서 쉬지 말고 해야 할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이 부활한 증거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몸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생활화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무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MT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청년이 그 여학생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마음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터널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마음은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매불망 입에 담고 싶은 단어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은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돈 이야기 하는 사람들 틈에서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라는 한 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지경이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강릉에 찾아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가 하는 말의 70%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의식하고 마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갖는 무게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름이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식함으로써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 부활이 일어나고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게가 담기고, 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무게가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의 존재가 갖는 무게의 극히 일부라도 담길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생을 생활화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어떤 현실도 내 마음을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담긴 무게감이 커질수록 현실은 뒤로 밀려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무게감이 담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부를 때에 내 마음을 압박할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문제 직장문제 가정문제 등 삶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하나님 이름의 무게감을 느끼며 부른다면 하나님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을 지나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고 머물러야만 합니다.
연예인들이 대중을 의식하듯이, 부장님이 사장님의 표정을 의식하듯이, MT 간 청년이 여학생을 의식하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의식하기를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삶에서 나를 압박하던 상황과 처지와 사건과 사람들이 더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가볍게 느껴졌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마음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천근만근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의식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의식하면서 나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지속 될 때에 마음은 죽음을 빠져나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은 곧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늘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의 무게감이 세상의 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묵직하게 느껴지며 세상의 문제들은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영생을 생활화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38장에서 곡이라는 왕이 마곡 지역의 주민들을 규합하고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방민족까지 동맹으로 삼아 선민들을 둘러쌀 것임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곡의 침략에 대해 선민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는 짖어도 선민은 간다.”라는 제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근거한 평강만을 추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은 38장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민이 평강에 주력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곡이 이끄는 군대를 처리하셨는데, 그 군대가 남긴 무기를 쓸 곳이 없어 땔감으로나마 쓰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칠년이나 쓸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칠년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선민을 해치려는 무기가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식해서 마음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에 도달해서 영생이 시작되면 이 세상에서 곡과 마곡의 동맹군에 속한 사람들 중에 나를 해하려하고 손해를 끼치려하고 죽이려는 그 어떤 세력과 무기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부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손에 쥐어진 모든 무기가 땔감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생활화하면 육체의 연관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털끝만큼의 손해나 상해나 죽음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죽음까지도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려서 신밧드 영화를 보았는데 마법사가 적으로 나옵니다. 이 마법사는 칼이나 창으로 찔러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을 빼서 깊은 산골짜기의 동굴 속에 숨겨놓았고 그 동굴 입구를 머리가 일곱 개 달린 뱀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마법사를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의식하는 자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곧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갔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가 있으니 육체 연관성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나 상해나 죽음은 결국 육체와 연관된 삶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은 느끼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통로로 삼아 빠져나갔으니 피해의식이나 손해의식이나 설령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불만이나 불평을 갖게 되고 피해의식이 생겨났다면 영생을 생활화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십자가를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 없고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종노릇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기쁨과 만족을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과 만족의 대상은 몸이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니 몸의 상해나 죽음을 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터널을 빠져나와 부활의 자리에 도달하여 영생을 생활화하게 되었다면 하늘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제

몸이 죽는 것도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생활화하는 자에게 죽음이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은 백번 죽어도 대단치 않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자유와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고 피해를 줄 수 없고 죽일 수가 없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받는 손해나 죽음까지도 죽음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몸이라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육체의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면 이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기에 마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의식함으로 주어지는 영생의 생활화와 그로인한 풍요로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의식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MT에 간 청년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의식하며 모든 말과 행동을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식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곡이 이끄는 마곡의 군대가 전멸하여 그들을 매장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영생을 생활화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 보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대단한 사람들이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모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가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업적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업적이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죽음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중국을 이끄는 시진핑 주석이 대단하다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부활입니다.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부활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활이 없는 한 모두 죽은 자의 움직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돈이 많은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직 마음의 부활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에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괴로워하든지 혹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노력하든지 그것이 모두 시체가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식하라는 말 외에는 다른 해줄 말이 없

습니다.
부활하고 나면 육체의 연관성을 가진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실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의 부활이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실은 죽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죽은 시체를 매장한다는 것은 곧 그 시체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길을 통과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생활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생활화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필요성을 모른다면 이러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제공해줍니다. 십자가를 의식하고 마음의 부활을 이루어 영생의 생활화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영생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영생을 생활화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의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식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죽음과 무덤을 지나 세상을 빠져나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머물러 영생을 만끽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신 바대로 육체의 연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현실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